

#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선자(禪者)

정운스님(신명희)\*

- I. 들어가면서
- II. 『경덕전등록』은 어떤 사료적 기록인가?
- III.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선자(禪者)
- IV. 나가면서  
: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선종의 특징 및 갈무리

## ■ 한글요약

『경덕전등록』은 1004년에 법안종의 도원이 엮은 책이다. 본고는 이 『경덕전등록』에 기록된 우리나라 승려뿐만 아니라 재가자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경덕전등록』은 총 30권, 과거 7불로부터 서천(西天) 28대(代), 동토 6조(祖)를 거쳐 법안문익에 이르기까지 1,701명 승려들의 행적(行蹟)과 기연(機緣)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951명 선사(僧師)의 행적만 전하고, 이외 이름만 전하지만 선종의 중요한 사서(史書)이다. 당나라 초기에는 교종이 발달했으나 중기 이후로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나말여초 승려들도 중국으로 건너가 선(禪)을 하고, 법맥을 받아왔다. 법을 받아온 선자(禪者)들 가운데는 승려도 있지만 대왕(大王)들도 포함된다. 신라 말기에는 승려들이 남약 계 선사들로부터 법을 받아왔으나 고려 초기로 들어가면 청원 계 선사들로부터 법을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덕

\* 전(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전등록』에도 나말여초 승려들의 행적과 기연(機緣)이 전한다. 이 사서에 기록된 우리나라 선사 행적을 통해 고대 한국불교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주제어 ● 『경덕전등록』, 나말여초, 선자(禪者), 법맥(法脈), 선종(禪宗)

## I. 들어가면서

『경덕전등록』은 1004년 법안종 도원이 쓴 선종 사서로서 역대 선자들의 기록이다. 법맥에 충실해 선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맥 이전 선자들·청규·수행지침서·좌선법·오도송 등 다양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선종사나 선사상을 추론하는데, 유익한 자료이다.

나말여초 승려들도 중국으로 들어가 선사들로부터 법을 받아와 우리나라에서 선종을 전개하였다. 그렇게 법을 전제한 선사들이 『경덕전등록』 각 권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각 권에 드러난 나말여초 승려들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경덕전등록』의 자료만으로는 나말여초 선사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름만 등장하거나 단편적인 기록뿐이다. 이에 정(靜)·균(筠) 두 선승에 의해 편찬된 『조당집(祖堂集)』<sup>1)</sup>을 참고삼아 선사의 행적을 소개한다. 또한 선사들의 비문을 참고해 이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대략 세 단락이다.

---

1) 『조당집(祖堂集)』은 20권이며, 952년 당말 오대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초경사(招慶寺)의 정(靜)·균(筠) 두 선승이 편찬하였다. 1245년 고려 때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 판각되어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이래로 『조당집』은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전하고 있다. 1권에서 20권까지 과거 7불, 가섭으로부터 달마까지 28조, 동토 6조 혜능, 청원 문하 8세인 설봉 의존, 남악 문하 7세 임제의현까지 모두 253인의 전기 및 법어, 전승 상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 선승들에 대해서도 수록되어 있어 고대 한국불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첫째,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우리나라 승려들이 누구에게서 법맥을 받았으며, 어떤 선종을 전개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우리나라 선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조당집』과 탐비(塔碑)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선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후대 불교사에 남긴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경덕전등록』은 어떤 사료적 기록인가?

『경덕전등록』 30권은景德(景德) 원년(元年)인 1004년 법안종(法眼宗)의 승천 도원(承天道原)이 엮었다. 양억(楊億)이 교정하고, 송나라 진종(眞宗, 997~1021 在位)에게 상진하여 입장(入藏)이 허락되었다. 당시 진종의 연호를 붙여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라고 하였다. 선종의 전등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 꼽는다. 도원이 처음 지었을 때의 이름은 『불조동참집(佛祖同參集)』이라고 하였다. 도원에 관해서는 생몰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안종에 속했던 스님으로 천태 덕소(天台德昭, 890~972)의 제자이다.

『경덕전등록』은 선종사의 법을 전한 내력을 담고 있는 사서(史書)로 중국 선종의 계보가 밝혀져 있는 책이다.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자 글자 수가 3십 2만 천 여 자에 달한다.<sup>2)</sup> 『경덕전등록』은 801년 『보림전』, 952년 『조당집』을 이은 선종의 사서이다. 또한 이 『전등록』에 영향을 받아 남송 때, 보제(普濟)에 의해 『오등회원(五燈會元)』이 편찬되었다(1252년). 즉, 『보림전』→『조당집』→『경덕전등록』→『오등회원』이다.

『경덕전등록』에는 과거 7불로부터 서천(西天) 28대, 동토 6조를 거쳐

2) 이지관(1992), 『한국불교연구소의 경전연구』, 가산불교문화원, 1080.

법안 문익에 이르기까지 1,701명 선사들의 기연(機緣)을 언급하고 있다. 951명 선사들의 전기만 전하고, 750여명은 이름만 등장한다. 즉 5가(五家) 52대에 이르기까지 법맥 순서대로 행적·법어·게송·오도송·선문규식(禪門規式)·법계(法系)·전법(傳法) 등에 관해 기록된 방대한 전등서이다.

이 『경덕전등록』이 사료적·선종사적 대표적인 문헌으로 선종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즉 1권~26권까지는 선종 5가의 선사들을 자세히 다루었다. 27권~30권까지는 선종의 중요한 어록과 법맥에 해당하지 않은 선자(禪者)들을 언급하고 있다. 27권에는 법계나 법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아시아 선자로 널리 알려진 분들을 소개한다. 즉 보지(寶誌)·선혜(善慧)·혜사(慧思)·천태 지의·승가(僧伽)·법운공(法雲公)·풍간·한산·습득·포대화상 등 10명의 선자들의 행적 및 법어가 전한다.

28권에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어록 및 법어가 실려 있다. 즉 남양 혜충·하택 신회·마조·약산 유엄·대주 혜해·분주 무엄·남전 보원·조주 종심·임제 의현·현사 사비·나한 계침·법안 문익 등 12인의 어록 및 광어(廣語)가 실려 있다.

29권에는 찬(讚)·송(頌)·계(偈)·시(詩)를 수록하였다. 보지공의 『대승찬(大乘讚)』 10수·『십이시송(十二時頌)』 12수·『십사과송(十四科頌)』·백거이의 『팔점계(八漸偈)』 8수 등 18인의 게송이 실려 있다.

제30권에는 명(銘)·기(記)·잠(箴)·가(歌)를 수록하였다. 부대사의 『심왕명(心王銘)』, 3조 승찬의 『신심명』, 우두 법용의 『심명(心銘)』, 무명 선사의 『식심명(息心銘)』, 달마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하택의 『현종기(顯宗記)』, 석두의 『참동계(參同契)』, 오운(五雲)의 『좌선잠(坐禪箴)』, 영가 현각의 『증도가』, 등등화상의 『요원가(了元歌)』, 단하 화상의 『완주음(斲珠吟)』 등 선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23편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우리나라 나말여

초 승려들의 행적도 전하고 있어 한국불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 Ⅲ.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선자(禪者)

『경덕전등록』은 고려 진각 혜심(眞覺慧謚, 1178~1234)의 『선문염송』<sup>3)</sup>과 함께 우리나라 승과(僧科) 및 선종선(禪宗選)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선사들은 이 책의 내용을 문답식 공개 시험에서 해독해야만 선사나 대선사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고려 중기에 진각 국사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술할 때 중요한 저본이 되었다. 근자에도 우리나라 선원에서 선객들이 널리 애독하는 사서이며, 학자들의 논문에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저본이다.

대략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승려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리하다.

6권에 신라국 본여(本如), 9권에는 도의·혜철·홍척·무염·현육·각체 등 6명, 10권에는 도윤·범일·가지(迦智)·충언(忠彦)·대모(大茅) 등 5인의 행적이 전한다. 11권에는 언충(彦忠)·대증(大證)·대증의 법사인 문성대왕과 현안대왕, 홍척[실상산문]과 법사인 흥덕대왕과 선강태자의 이름이 전한다.

12권에는 순지(順支)·지리산화상(智異山和尚)의 기록이 전하며, 16권에는 흠충(欽忠)·행적(行寂)·낭(朗)·청허(淸虛) 등 4명의 기록이 전하고, 17권에는 금장(金藏)·청원(淸院)·와룡(臥龍)·서암(瑞巖)·박암(泊巖)·대령(大嶺)의 기록이 전한다. 19권에는 대무위(大無爲)의 기록이 전하며, 20권에는 운주(雲住)·경유(慶猷)·혜(慧) 등 3명의 기록이 전하

3) 당대(唐代)를 비롯해 북송대(北宋代)에 이르기까지 선사들에 대한 기록 및 그에 대한 후인의 염(拈)·송(頌) 등 착어[著語: 공안에 붙이는 짚막한 평]를 모아서, 조사들의 전등(傳燈)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공안의 숫자는 1,472칙이다.

고, 25권에는 고려 도봉 혜거의 기록이 전하며, 26권에는 고려 영감(靈鑑)의 기록이 전한다.

## 1. 신라 중기 - 6권, 남악 회양<sup>4)</sup>의 2세 법손

6권 「회양장」에 의하면, 본여의 기록이 있다. 즉 “남악 회양의 제자에는 9명이 있었다.”라고 명기한 뒤, 마조 이외에도 ‘신라국 본여스님을 비롯해 7명의 제자가 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5)</sup> 본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연은 전하지 않고, 이름만 전할 뿐이다[법맥은 6조 혜능·회양·본여].

## 2. 신라 말기 - 9권 회양의 4세 법손

9권에는 남악 회양의 3세인 서당 지장(西堂智藏, 735~814)을 거론한 뒤 서당의 법사인 계림(鷄林) 도의선사(道義禪師)·신라국(新羅國) 혜선사(慧禪師)·신라국 홍직선사(洪直禪師)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법맥은 회양·마조·서당지장·도의·혜·홍직]. 이 신라 선사 3인에 대해서는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sup>6)</sup> 이어서 회양의 3

---

4) 5가(五家)는 육조 혜능(六祖慧能, 638~713)의 제자인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와 남악 회양(南岳懷讓, 677~744)으로부터 비롯된다. 남악 문하에서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이 배출되었고, 청원 문하에서 석두 희천(石頭希遷, 700~791)이 등장한다. 마조 문하에서 위양종·임제종, 석두 문하에서 운문종·조동종·법안종이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남악 문하에서 간화선, 행사문하에서 묵조선이 발전하였다. ; 남악 회양에 관해서는 『경덕전등록』권5 「남악회양장」(T51, 245b)에 전하는 기록을 보자. 회양의 속성이 두씨(杜氏), 산둥성(山東省) 김주(金州, 현 興安府 安康縣) 출신이다. 15세에 형주 옥천사(玉泉寺)의 홍경 율사(634~712)에게 출가해 계율을 공부하다가 동학인 탄연(坦然)과 함께 송산(高山)의 혜안(慧安)을 참문했다. 혜안은 5조 홍인의 제자로서 혜능과 동문이다. 회양은 혜안에게서 ‘여하시조사 서래의지(如何是祖師西來意旨)’란 문답으로 깨달음을 얻은 뒤에 혜안의 권유로 6조 혜능을 참문한 뒤, 혜능의 법맥을 받았다.

5) 『景德傳燈錄』卷5 「南岳懷讓章」(T51, 245b), “南岳懷讓禪師法師 第一世九人”.

세인 포주(蒲州) 마곡산(麻谷山) 보철(寶徹) 선사(禪師)의 법사로 2인을 거론하는 가운데, 신라국 무염(無染)을 들고 있다. 무염에 대해서는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전하고 있다[법맥은 회양-마조-보철-무염].<sup>7)</sup>

다음 회양의 3세인 경조(京兆) 장경산(章敬山) 회휘(懷暉)의 법사 16인을 거론하며 신라국 현욱선사(玄昱禪師)·신라국 각체선사(覺體禪師)를 포함하고 있다[법맥은 회양-마조-회휘-현욱·각체]. 여기서 신라국 두 선사도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sup>8)</sup>

Ⅲ-2장에서는 기록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도의·혜·홍직·무염·현욱에 대해서만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지산문 도의

현재 조계종 종헌(제 2장 6조)종법에 의하면 ‘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의 증법손 서당지장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道義國師)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국사를 증흥조로 하여 청허와 부휴 양 법맥을 계승한다’라고 하였다.<sup>9)</sup> 조계종은 종헌 서문에도 ‘우리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하사 가지영역에서 종당을 계양함으로써……’라고 하였다.

도의국사(?~825)는 조계종의 종조이다.<sup>10)</sup> 도의는 선덕왕 5년(784)에

6) 『景德傳燈錄』卷9 (T51, 264a).

7) 『景德傳燈錄』卷9 (T51, 264a).

8) 『景德傳燈錄』卷9 (T51, 264b).

9)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2019), 『종법집』, 5.

10) 도의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몇 가지 단편적이다.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 의하면 ‘도의를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어라고 비난하여 도의는 설악산에 몸을 감추었다……’라고 한다.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에 그의 행적과 법맥이 전한다.

입당했다. 『조당집』에 의하면, 입당해 오대산에 참배를 한 뒤에 광동성 광주 보단사[寶壇寺, 현 대법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조계산으로 가서 6조 혜능을 모신 조사당에 이르렀다.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삼배를 올리고 나오니 또한 문이 닫혔다는 신이한 고사가 전한다.<sup>11)</sup> 도의는 강서성(江西省) 홍주(洪州) 개원사[開元寺, 현 佑民寺]에서 서당(735~814)을 참알하고 의심하고 있던 바를 물어 그 의문점을 풀었다. 서당은 마치 돌더미에서 아름다운 옥(玉)을 얻은 듯 하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워낸 것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이런 뒤 서당은 그에게 호를 ‘도의’라 고쳐주었다.

도이는 서당 문하에서 수행한 뒤, 백장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도의는 서당을 모시는 것과 똑같이 백장을 스승으로 섬겼다.

백장이 도의에게 말했다.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의 승려에게 넘어가는구나.”<sup>12)</sup>

도의는 37년 동안 당나라에 거주하며 법을 구한 뒤, 821년 귀국했다. 그러나 도의는 교종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비문에 의하면, 그는 신라에 돌아와 선리를 설했다. 그때 사람들은 오직 경교(經敎)와 습존관심(習存觀心)의 법을 숭상하여 아직 무위임운지종(無爲任運之宗)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황당한 소리라고 하며 존송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양무제가 달마의 법을 이해하지 못함과 같았다.<sup>13)</sup> 그는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 은거하며 수행하다, 제자 염거(廉居, ?~844)에게 법을 전했다.<sup>14)</sup>

11) 『祖堂集』卷17「雪岳陳田寺元寂章」(K45, 338b).

12) 『祖堂集』卷17「雪岳陳田寺元寂章」(K45, 338c), “誠可以傳法 非斯人而誰 改名道義 於是頭陀而謁百丈山懷海和尚處 一似西堂和尚曰 江西禪脈總屬東國之僧歟.”

13)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武州 迦智山 寶林寺「諡普照禪師 靈塔銘并序」, 62.



## 2) 실상산문 홍직(洪直)

홍직은 당시 도의와 쌍벽을 이루어 북산의(北山義) 남악척(南岳陟)<sup>15)</sup>이라고 했으며, 나말여초에 최초로 산문을 열었다.<sup>16)</sup>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홍직(洪直)이 홍척(洪陟)이다. 810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서당의 법을 받고 도의보다 5년 뒤인 826년에 귀국했다.<sup>17)</sup> 홍덕왕과 선강태자의 후원으로 지리산 실상사를 개산(開山)하였다. 홍척은 왕실과 통로를 열었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9산선문 가운데 왕궁과 가장 밀착한 산문이기도 하다.<sup>18)</sup> 홍척은 830년 무렵, 지리산에 머물다 홍덕왕의 초청으로 경주로 옮겨갔다. 이후 836년 무렵, 설악산으로 옮겨가 머물렀다. 홍척이 설악산에 머물 때, 수철(秀澈, 817~893)이 찾아와 그를 제자로 하여 법을 전했다.<sup>19)</sup>

---

14) 앞에서 전개한 내용은 武州 迦智山 寶林寺 「諡普照禪師 靈塔銘并序」, 『朝鮮金石總攬』上(1976), 62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보조 체징은 염거로부터 법을 받은 뒤, 837년 당나라에 들어가 공부하다 840년 신라로 돌아왔다. 이후 체징은 전남 장흥(長興) 가지산(迦智山) 보림사(寶林寺)에 산문을 열었다. 이후 이 산문에는 800여명의 승려들이 운집해 수행했다고 하니, 도의의 선법이 당시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산문은 분명히 3조 체징이 열었지만, 가지산문에는 도의의 선사상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鳳巖寺智證大師 寂照塔碑」 95, “北山義與 南岳陟”.

16) 북산(北山)이란 설악(雪岳)의 진전사(陳田寺)에 은둔했던 도의와 역성사(億聖寺)에 머물렀던 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17)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深源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碑」 60. 말미에 “祖西堂□父南岳陟 化衆十方爲師”라고 새겨져 있다. 즉 “할아버지는 서당지장, 아버지는 남악홍척, 시방중생 교화하여 한나라 스승이 되었네.”

18)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深源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碑」, 56-60.

19)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深源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碑」, 60.

### 3) 동리산문 혜선사

혜선사(慧禪師)는 바로 혜철(惠徹, 791~861)을 말한다. 혜철은 10여세에 출가해 처음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웠다. 『화엄경』을 공부하다 이 교학으로 해탈할 수 없다고 탄식한 뒤, 헌덕왕 5년(813)에 당나라로 들어갔다. 입당한 혜철은 서당(735~814)을 만났다. 서당은 스승 마조에게서 “경(經)은 서당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서당은 경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렇게 어느 정도 교학에 밝은 선사였기에 신라의 승려들이 귀의했을 것으로 본다. 혜철이 서당과 만났을 때의 문답이 「대안사적인선사비명(大安寺寂忍禪師碑銘)」에 나온다. 혜철은 서당에게 말했다. ‘소승은 동국에서 태어나 하늘과 땅에 길을 물어 먼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당나라에 와서 법문 듣기를 청합니다. 만일 훗날 무설(無說)의 설(說), 무법(無法)의 법(法)이 바다 건너 해동에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혜철은 스승 서당에게 법을 받았다. 이 내용이 「옥룡사선각국사혜등탑비(玉龍寺禪覺國師慧燈塔碑)」에 전한다.<sup>21)</sup>

혜철은 서당이 입적하자, 여러 곳을 행각하다 839년 귀국하였다. 동리산으로 들어가 현 곡성 태안사에서 산문을 개산하였다. 이 문하에서 고려 초, 풍수지리에 밝은 도선이 나온다.<sup>22)</sup>

### 4) 성주산문 무염

랑혜 무염(朗慧無染, 800~857)은 태종무열왕 8세손인 진골 출신으로

20) 「景德傳燈錄」卷6「百丈章」(T51, 249b~c), “經入藏”.

21)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玉龍寺「先覺國師 證聖慧燈塔碑」“大師 傳密印於西堂智藏禪師 開堂演說於桐裡山 … 凡所謂無說之說無法之法 虛中授受 廓爾超悟.”

22) 도선은 道乘으로도 불리며 시호가 了空이다. 白溪山 玉龍寺에 머물렀기 때문에 玉龍子라고도 하였다. 그는 고려를 개국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뒷날 肅宗 때 王師가 되기도 했다.

13세에 설악산 오색석사에 출가하였다. 마침 이곳에서 무염은 중국에서 능가선(楞伽禪)을 익히고 돌아온 법성(法性) 스님에게 『능가경』을 배웠고, 이어서 화엄을 공부했다. 821년 입당해 서안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서 또 다시 『화엄경』을 공부하였다. 이후 사교입선(捨教入禪)하여 낙양 불광사(佛光寺)의 불광 여만(佛光如滿)과 도담(道談)을 나누었는데, 여만은 무염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대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훗날에 중국의 도가 끊기면, 신라에 가서 도를 물어야 할 것이다.”<sup>23)</sup>라고 하였다. 이후 마조의 법사인 마곡 보철(麻谷寶徹)을 참문한 뒤에 그에게 법을 받았다.<sup>24)</sup>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해 충남 보령에 성주산문을 개산하였다. 「성주사 대랑혜화상 백월보광탑비(聖住寺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에 의하면, 그는 국사로 책봉되었는데, 경문왕·헌강왕의 국사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선지를 제시한 대가로 알려져 있다.<sup>25)</sup>

무염이 888년, 입적해 시호는 대랑혜(大朗慧)이고, 탑호는 일원보광(白月葆光)이다. 무염의 문하에는 승량·보신·대통·여엄·심광 등 2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sup>26)</sup>

신라 선종의 대표 사상인 무설토론(無舌土論)은 무염의 법문이다. 무설토론은 천책(天頌)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도 전하는데, 불교와 조도(祖道)를 구별하여 불교(유설토)는 응기문(應機門)·언설문(言說門)·예토문(穢土門)으로 하고, 조도[무설토]는 정전문(正傳門)·무설문

23) 『祖堂集』卷17, 「崇巖山 聖住寺 無染章」(K45, 340a), “吾聞人多矣罕有如是東國人 他日中國失禪之時 將問之東夷”

24) 『祖堂集』卷17 「崇巖山 聖住寺 無染章」(K45, 340a).

2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上(1976), 聖住寺「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 79.

26) 심광(深光)은 진성왕 때에 덕유산(德裕山) 영각사(靈覺寺)에서 무염의 선종을 신앙했다. 그는 무염의 제자 가운데 무염의 법을 정통으로 계승한 자인데, 그에 관한 행적이 자세하지 않다. 대통(大通)은 856년 중국에 들어가 양산(仰山)의 법을 받고 866년에 귀국하여, 충주 月光寺에 거주하였다. 월광사는 무열왕계 후손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도증(道證)이 창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주산문과 연결된 절이다.

(無說門)· 부정불예문(不淨不滅門)이라고 하였다. 즉 무염은 선교(禪敎) 차원에서 선사상은 무설토에 역점을 두되 유설토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사상을 이끌 수 있는 길로 무상무위무전(無相無爲無傳)을 주장하였다.

### 5) 봉림산문 현옥

원감 현옥(圓鑑玄昱, 789~869)은 21세에 출가해 구족계를 받고 헌덕왕 16년(824)에 당으로 들어가 장경 회휘(章敬懷暉, 754~815)에게서 법을 받았다. 837년 귀국해 실상사에 머물다, 해묵산 고달사로 옮겨가 선종을 전개하였다. 『경덕전등록』에 의하면, 봉림산문의 독특한 사상은 전하지 않고 삼승 이외의 특별한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상으로 표현하여 선이 교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는 기록이 전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27)</sup> 현옥의 뒤를 이은 제자 심희(審希, 854~923)가 있다.

## 3. 신라 말기 - 10권, 회양의 4세 법손

남악 회양의 3세인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의 법손 17인을 거론하며 ‘신라국 도균(道均)’ 이름이 전하는데,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회양-마조-남전-도균]<sup>28)</sup>

남악 회양의 3세인 항주(抗州) 염관 제안(鹽官齊安, ?~842)의 법사 8인을 거론하며 신라국 품일(品日) 선사를 거론하고 있다[회양-마조-염관-품일].<sup>29)</sup>

27) 『景德傳燈錄』卷7「章敬章」(T51, 252c)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三乘敎外別立心如何 師曰 汝見目前 虛空麼 曰 信知常在目前 人自不見 師曰 汝莫認影像 曰 和尚作麼生 師曰 以手撥空 三下 曰 作麼生 即是 師曰 汝向後會去在 有一僧來 繞師三匝 振錫而立”.

28) 『景德傳燈錄』卷9 (T51, 273b).

29) 『景德傳燈錄』卷9 (T51, 273b).

남악 회양의 3세인 명주(明州) 대매 법상(大梅法常, 752~839)의 법사 3인을 거론하며 신라국 가지(迦智)와 충언(忠彦)을 포함시킨 뒤에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법상·가지·충언].<sup>30)</sup>

남악 회양의 3세인 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 지상(智常)의 법사 6인을 거론하는 가운데 신라 대모화상(大茅和尚)이 전하는데,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귀종지상·대모].<sup>31)</sup>

Ⅲ-3장에서는 기록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도균·품일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자산문 도균

도균(道均)은 사자산문의 개산조(開山祖)인 철감 도운(徹鑑道允, 798~868)을 말한다. 시호가 철감, 18세에 출가하였다. 도운은 경전의 이치보다는 심인(心印)의 묘용(妙用)을 깨닫고자 선수행을 마음에 두었다. 그는 헌덕왕 17년(825)에 입당해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에게 법을 받았다. 남전에게 법을 받은 내용이 『증효대사보인탑비(澄曉大師寶印塔碑)』에 강조되어 있다. 내용은 “금강산 도운화상이 오랫동안 중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산문에 나아가 공경히 오체투지를 하였다. 도운화상은 중국에 들어가 남전을 침알하고, 남전의 법을 받았다. …우리 도운화상의 덕이 높고 뛰어나다.”<sup>32)</sup>이다.

30) 『景德傳燈錄』卷9 (T51, 273b).

31) 『景德傳燈錄』卷9 (T51, 273c).

32) 『朝鮮金石總攬』上(1976), 『興寧寺澄曉大師 寶印塔碑』, 158, “企聞楓岳長潭寺有道允和尚久遊華夏返故鄉特詣禪扉自投五體…和尚纔中國先謁南泉…其高會(峻)可知矣”.

도윤은 문성왕 8년(847)에 귀국하여 금강산에 머물다가 전라도 화순 쌍봉사(雙峰寺)로 옮겨가 크게 선법을 펼쳤다. 경문왕 8년(868)에 입적했다. 도윤의 제자로는 절중(折中, 826~900)이 있다. 절중은 강원도 흥녕선원興寧禪院에서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 2) 사굴산문 품일

품일(品日)은 사굴산문의 통효 범일(通曉梵日, 810~889)이다. 범일은 당나라에까지 그의 수행력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범일은 15세에 출가해 『능가경』을 공부하다가 헌덕왕 6년(831)에 입당했다. 범일은 여러 지역을 발초침봉해 선지식을 참문하다 마침내 염관 제안(鹽官齊安, ?~842)을 만났다. 범일이 염관제안과 범거량을 하였는데, 그 일화가 『조당집』에 전한다.

염관제안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에서 왔습니다.”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두 가지 길을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을 다 밟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해와 달에게 동(東)과 서(西)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대는 동방(東方)의 보살이로다.”<sup>33)</sup>

범일은 염관에게서 법을 얻고 문성왕 9년(847)에 귀국했다. 처음 백달산에서 수행하다가 문성왕 12년(851년)에 사굴산문을 개산하였다. 그는

33) 『祖堂集』卷17「溟州堀山通曉章」(K45, 339a), “鹽官齊安大師 大師問曰 什麼處來 答曰 東國來 大師進曰 水路來陸路來 對云 不踏兩路 來既不踏兩路 闍梨爭得到這裏 對曰 日月東西有什麼障礙 大師曰 實是東方菩薩”.

71세로 열반에 들었고, 시호는 ‘통효(通曉)’, 탑명은 연휘(延徽)이다. 범일의 대표적인 선사상은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다. 스님의 진귀조사설은 고려 진정 천책(眞靜天頤, 1206~?)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과 서산 휴정(西山休靜, 1520~1604)의 『선교석(禪教釋)』에 실려 있다.<sup>34)</sup>

범일의 제자로는 걸출한 제자 10인이 있으나 행적이 전하는 이는 행적(行寂)과 개청(開淸)뿐이다.<sup>35)</sup> 후대 고려 때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도 사굴산문의 승려이다. 또한 고려 초기에 입승해 정인(淨因) 선사에게 선법을 얻고 귀국해 선풍을 전개한 혜소(慧炤) 국사가 있다.

#### 4. 신라 말기 - 11권, 회양의 5세 법손

회양의 4세인 천룡(天龍) 화상의 법사로 신라국 언충(彦忠)이 등장하는데,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법상-천용-언충].<sup>36)</sup>

회양의 4세에 해당하는 신라 대증(大證) 선사의 법사 2인으로 문성대왕과 현안대왕이 있다. 두 대왕은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대증-문성대왕·현안대왕].<sup>37)</sup>

회양의 4세에 해당하는 신라 홍직선사의 법사 2인이 나오는데, 흥덕대왕과 선강태자 2인은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

---

34) 『禪門寶藏錄』 「頓教對辨門」, 25則 (H6, 470), “眞歸祖師在雪山 叢木房中待釋迦 傳持祖印壬午歲 心得同時祖宗旨 達磨密錄”; 진귀조사가 설산에 계시면서 석가를 기다렸다가 석가에게 心印을 전해 주었다는 설이다. 이렇게 석가도 진귀조사 [眞歸祖師, 문수보살의 화신]를 만남으로서 진정한 정법안장을 전수받고 종지를 증득했다는 설이다. 이 설은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선사상이다.

35) 행적(行寂, 832~916)에 대해서는 Ⅲ-6장에 언급한다. 개청(開淸)은 범일 문하에 있다가 강릉 보현사(普賢寺)에 거주하며 선풍을 전개했다. 훗날 고려 왕건의 귀를 받았다.

36) 『景德傳燈錄』卷9 (T51, 382a).

37) 『景德傳燈錄』卷9 (T51, 382a).

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서당지장-홍직-홍덕대왕·선강태자]38)

## 5. 신라 말기 - 12권, 회양의 6세 법손

회양의 5세 법손인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의 법사로 20인의 이름이 전하는데, 여기에 ‘신라국 지리산화상(智異山和尚)’의 이름이 전한다. 지리산화상에 대해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제시되어 있다[법맥은 회양-마조-백장-황벽-임제-지리산화상].39)

회양의 5세 법손인 원주袁州 양산 혜적(仰山慧寂, 807~883)의 법사로 10인의 기록이 전하는데, 여기에 신라 오관산(五冠山) 순지(順支)가 등장한다[법맥은 회양-마조-백장-위산-양산-순지].

Ⅲ-5장에서는 기록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오관산문 순지 화상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관산 순지의 행적에 대한 자료는 요오화상비(了悟和尚碑)와 『조당집』권 20에 「서운화상장」, 『경덕전등록』등 여러 곳에 전하는데, 『조당집』은 이 비문에 의거하여 내용이 실려 있다.40)

순지는 평안도 패강(溟江) 출신으로 속성은 박씨이고, 지방 호족출신이다. 서운사화상(瑞雲寺和尚)이라고도 한다. 오관산 오관사에서 삭발하고 속리산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순지는 858년 현안왕 때 당나라에 들어가 바로 강서성(江西省) 원주(袁州) 양산 혜적(803~887)에게 배우고, 그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처음 양산과 순지가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두 사람에 대해 『조당집』에서는 순지가 양산의 곁을 떠나지 않고 현현한 종지를 물으니 “마치 안회가 공자 곁에 있는 듯하였고, 가섭존자가 부처님

38) 『景德傳燈錄』卷9 (T51, 382a).

39) 『景德傳燈錄』卷9 (T51, 289b).

40) 김영태(1975), 「삼국신라시대불교금석문고증(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 326.



의 곁에 있는 듯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sup>41)</sup>

순지는 양산의 법을 받고 신라로 돌아와 874년 오관산에 산문을 개창했다. 순지는 양산에게서 97개의 원상(圓相) 법문을 구한 뒤, 신라로 돌아와 위양종의 일원상을 신라에 전했다. 순지는 양산으로부터 원상 법문을 전해 받은 뒤 표상현법(表相顯法)으로 정리하였다. 즉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단계와 원리를 원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3단계[四對八相·兩對四相·四對五相]라는 16개의 원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순지의 원상 법문이 드러난 부분을 보기로 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순지가 불자를 세우니, 승려가 말했다.

“그것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지가 불자를 던졌다.

“‘이(以)’자도 아니요, ‘팔(八)’자도 아니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사가 원상을 그려보였다.

어떤 승려가 대사의 앞에서 다섯 고리의 원상을 그리니, 대사가 지워 버리고 따로 원상 하나만을 그렸다.<sup>42)</sup>

그러나 순지의 원상 법문은 보편화되지 못했으며, 후대까지 전승되지 않았다. 『조당집』에 전하는 순지의 법문에는 「표상현법(表相顯法)」1편,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1편이다. 「삼편성불론」의 세 가지는 방법과 근거에 따른 세 가지 구별을 밝힌 것으로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sup>43)</sup> 즉, ㉠ 증리성불(證理成佛)· ㉡ 행만성불(行滿成佛)· ㉢

41) 『祖堂集』卷20 「五冠山 瑞雲寺章」(K45, 356a), “若顏回於夫子之下 如迦葉於釋尊之前.”

42) 『景德傳燈錄』卷9 (T51, 294a), “新羅五觀山順支本國號了悟大師 僧問如何是西來意 師豎拂子 僧曰 莫遮箇便是 師放下拂子 問以字不成八字不是 是什麼字 師作圓相示之 有僧於師前作五花圓相 師畫破別作一圓相”.

시현성불(示顯成佛)인데, ㉠ 증리(證理)는 깨달음, ㉡ 행만(行滿)은 실천, ㉢ 시현(示顯)은 교화를 말한다. 즉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견해에서 깨달음만으로 성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 깨달음·㉡ 실천·㉢ 교화 등 세 번의 성불을 통해서 진정한 성불이 된다는 것이다.

## 6. 신라 말기 - 16권, 청원 행사<sup>44)</sup>의 6세 법손

길주(吉州) 청원산(靑原山) 행사(行思)의 5세 법사인 담주(潭州) 석상경저(石霜慶諸, 807~888)의 법을 이은 법사로 41인의 기록이 전한다. 여기에 신라 흠충(欽忠)·신라 행적(行寂)·신라 낭(朗)선사·신라 청허(淸虛)는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약산유엄-도오원지-석상경저-흠충·행적·낭·청허].<sup>45)</sup>

Ⅲ-6장에서는 기록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사굴산문 2세 낭공 행적의 전기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낭공 행적(朗空行寂, 832~916)은 사굴산문 승려로서 조동종 석두계 선사상을 처음으로 전한 인물이다. 물론 행적보다 앞서서 동산 양개(807~869)에게 수학한 승려 금장(金藏)이 있었으나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sup>46)</sup> 행적은 가야산 해인사에서 화엄을 배우고, 문성왕 17년(855)에 복천사(福泉寺) 관단(官壇)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사굴산문 범일선사를 찾아가 입실을 허락받고, 수년 간 공부하였다. 이후 행적은 경문왕 10년

43) 『祖堂集』卷20「五冠山 瑞雲寺章」(K45, 357b).

44)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는 江西省 吉安 출신으로 속성은 유瀏씨다. 어려서 출가하여 여러 곳을 참방하다 6조 혜능(638~713)의 제자가 되었다. 혜능과 법거량 이후 혜능은 청원의 수승함을 인정하고, 법맥을 받았다. 이후 행사는 여러 제방을 다니며 수행하다, 714년 자신의 고향인 길안으로 돌아와 청원산 정거사에서 선풍을 펼쳤다.

45) 『景德傳燈錄』卷9 (T51, 325c).

46) 다음 Ⅲ-7장에 금장이 재 언급된다.

(870)에 당나라로 건너갔다. 당에 머문 지 얼마안되어 황제의 칙명을 받고 입내설법하였다. 의중(859~873 在位)이 선사에게 물었다.

“멀리서 바다 건너 여기까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소승은 다행히도 상국의 불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들었습니다. 이에 도를 찾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폐하의 은혜를 받고 불교의 풍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다행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널리 불적을 돌아보고, 마음 깨치는 구슬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황제가 행적에게 감화를 받아 선사에게 많은 공양물을 올렸다. 이후 행적은 오대산 화엄사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예참하고, 874년(희종 2년) 사천성 성도에 이르러 정중사淨衆寺의 무상(無相) 대사 영당에 예를 올렸다. 이후 석두계인 석상 경저(石霜慶諸, 807~888)의 문하로 들어갔다. 신라 승려로서 석상을 참례한 경우는 행적이 처음이다. 행적은 석상에게서 법을 얻었다.<sup>47)</sup> 이후 행적은 여러 곳을 행각하며 선지식을 찾아다녔다.

행적은 고국을 떠난 지 15년만인 885년(헌강왕 11)에 귀국하였다. 돌아와 범일을 뵈고 다시 운수행각을 떠났다. 889년, 행적은 범일의 입적에 즈음해 스승을 찾아가 심인을 받았다. 행적이 삭주(朔州: 강원도 춘천) 건자난야(建子蘭若)에서 산문을 개산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효공왕이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어 행적을 궁궐로 초청하였다. 왕이 선사에게 예를 다하며 귀의하자, 왕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915년 고려 태조가 그를 국사로 임명하고, 실제사(實際寺)를 선찰(禪刹)로 하여 이곳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후 행적의 여제자 명요(明瑤) 부인이 석남산사(石南山寺)를 선사에게 보시해 머물도록 하였다. 이듬해 917

47) 행적처럼 신라 사문으로서 석상 경저에게서 법을 얻은 자는 흙종(欽宗)·법허(法虛)·량(朗)이 있다. 한편 석상의 제자 구봉 도견(九峰道虔) 문하에 신라승려 국청(國淸)이 있고, 雲蓋志元(운개지원) 문하에 와룡(臥龍)이 있으며, 곡산도연(谷山道緣) 문하에 긍양이 있다.

년 병이 들어 85세로 석남산사에서 좌탈하였다. 시호는 낭공(朗空), 탑호는 백월서운(白月棲雲)이다. 이후 경북 봉화 태자사에 탑비를 세웠다.<sup>48)</sup> 제자에 500여명이 있을 정도로 행적의 선풍이 당시 크게 드날렸다. 행적의 직계 제자로서 법을 이은 선사는 양경(讓景)이다. 양경의 할아버지는 원성왕의 표래손[表來孫, 외가로 5대손]이요, 현강왕의 장인으로 집사시랑執事侍郎을 지냈고, 아버지 순례(詢禮)도 집사함향(執事含香)을 지냈다.

이렇게 행적처럼 신라사문으로서 석상경저에게 법을 얻은 승려는 흙종 欽宗·법허法虛·랑朗이 있다. 또 석상의 제자인 곡산 도연(谷山道緣)에게서 법을 얻은 희양산문의 공양(兢讓, 878~956)이 있다[석두-약산-도오-원지-석상경저-곡산도연-공양]. 또 석상의 제자인 구봉 도건(九峰道虔) 문하에 신라 승려 국청(國淸)이 있다[석두-약산-도오-석상경저-구봉도건-국청].

## 7. 고려 초기 - 17권, 행사의 6세 법손

행사의 5세인 원주(袁州)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의 5세에 26인을 기록하는 가운데 “신라국 금장화상(金藏和尚)”을 언급하고 있다. 금장에 대해서는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약산유엄-운암담성-양개-금장].<sup>49)</sup>

행사의 5세인 균주(筠州) 구봉 도건(九峯道虔)의 법사 10인의 기록이 전하는 가운데 “신라 청원(淸院)화상”을 언급하고 있다.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약산유엄-도오원지-구봉도건-청원].<sup>50)</sup>

48) 『朝鮮金石總攬』上(1976), 奉化 太子寺 朗空大師白月棲雲 塔碑.

49) 『景德傳燈錄』卷9 (T51, 334a).

50) 『景德傳燈錄』卷9 (T51, 334b).

행사의 5세인 담주(潭州) 운개산(雲蓋山) 지원(志元) 선사의 법사 3인의 기록 가운데 “신라 와룡(臥龍)화상”을 언급하고 있다. 와룡에 대해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 … 지원-금장].<sup>51)</sup>

행사의 5세인 담주(潭州) 곡산(谷山) 장(藏)선사의 법사 3인의 기록이 전하는데, 신라 서암(瑞巖)·신라 박암(泊巖)·신라 대령(大嶺), 3인을 언급하고 있다. 3인에 대해서는 기연할 어구가 없어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 … 석상경저-곡산-서암·박암·대령].<sup>52)</sup>

## 8. 고려 초기 - 19권, 길주 청원 행사의 7세 법손

복주(福州) 설봉 의존(雪峰義存, 822~908)의 문도 42인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신라국 대무위(大無爲)’가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천황도오-용담승신-덕산선감-설봉-대무위].<sup>53)</sup>

## 9. 고려 초기 - 20권, 행사의 7세 법손

행사의 6세인 길주 운거산 도응 선사의 법사 27인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라 운주(雲住)화상’이 나오고, 이어서 신라 경유선사(慶猷禪師)·신라 혜선사(慧禪師)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약산유엄-운거도응-동산양개-운거도응-운주·경유·혜].<sup>54)</sup>

Ⅲ-9장에서는 기록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운주·경유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景德傳燈錄』卷9 (T51, 334b).

52) 『景德傳燈錄』卷9 (T51, 334b).

53) 『景德傳燈錄』卷9 (T51, 353b).

54) 『景德傳燈錄』卷20 (T51, 360c).

신라 운주 화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운주화상의 범거량을 보자.

어느 승려가 물었다.

“여러 부처님들이 말씀하시지 못한 것을 누가 말합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

“부처님들이 말씀하시지 못한 것을 화상께서 어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처님들이 나의 제자이다.”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왕을 상대하지 않았더라면, 스무 방망이는 때렸어야 했구나.”<sup>55)</sup>

경유(慶猷, 871~921)는 사자산문<sup>56)</sup> 2세인 징효 절중(澄曉折中, 826~900)의 제자이다. 경유에 의해 사자산문의 선풍이 크게 진작되었다. 즉 경유는 사자산문 3조에 해당한다[법맥은 도윤-절중-경유].<sup>57)</sup> 경유의 조상은 본래 중국 한족으로, 당진 지역의 호족으로 성장했다. 경유는 15세 에 훈종(訓宗)에게 출가해 18세 때 근도사(近度寺) 영종율사(靈宗律師)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경유는 선을 배우기 위해 입당사를 따라 당나라에 들어가 도응 문하에 들어갔다. 얼마 후 도응은 선사에게 “경유, 한 사람만이 능히 내 마음을 열었구나.”라고 하면서 심인을 전해주었다.

경유는 908년 38세 때 무주의 회진(會津)으로 귀국하였다. 경유의 비문에 의하면, 법경은 나말여초의 혼란을 피해 산속에 묻혀 살다가 궁예를 만나 후고구려로 들어갔다. 궁예의 폭정으로 후고구려가 멸망하자 고려 태

55) 『景德傳燈錄』卷20 (T51, 363b), “新羅雲住和尚 問諸佛道不得什麼人道得 師曰 老僧道得 曰諸佛道不得 和尚作麼生道 師曰 諸佛是我弟子 曰請和尚道 師曰 不對君王好與二十棒”

56)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은 앞 Ⅲ-3장-(1)에 언급된 도균(道均)을 말한다. 사자산문의 개산조가 도균[도윤]이고, 경유는 2세인 절중(折中)의 제자이다. 즉 법맥은 도윤-절중-경유이다.

57) 경유는 무염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은 산문이 정확하지 않게 보는 학자도 있다.

조 왕건이 선사를 왕사로 모셨다. 이 비문에는 궁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으로 유일하다고 한다. 태조는 경유에게 백성을 다스릴 훈계를 물었고, 경유는 이에 맞는 법을 설해주었다. 921년 선사는 일월사(日月寺)에서 입적해 다음 해에 법구가 용암산(踊岩山)으로 옮겨졌다. 문하에 정(定)○, 장현(裝玄) 등이 있다.<sup>58)</sup> 선사 입적 후, 70여년인 994년에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오룡사지에 탐비[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가 세워졌다. 경유의 탐비는 북한 국보 153호이다. 수미산문의 이엄·경유·여엄·형미 선사는 모두 891년에서 896년 사이, 운거 도응의 법을 받았다. 이 네 선사를 사무외대사(四無畏大士)라고 한다. 사무외대사란 “두려울 게 없는 경지에 이른 네 분의 스님”이라는 뜻이다. 사무외대사 명칭은 중국이 아닌 고려에서 명명되었는데, 언제부터 불러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유래는 학계에서 경유의 탐비에 전하는 내용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엄·여엄·경유·형미를 모두 사무외대사라고 하였다. 도응 선사가 말하기를 ‘말을 걸어보면 선비임을 알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만리에 동풍(同風)이요, 천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사현(四賢)은 마음으로 흠모하면서 불경을 배우고, 감개하면서 개당하여 이후 선풍을 펼쳤다.”<sup>59)</sup>

대경대사 여엄의 비문을 통해 볼 때, 사무외대사 가운데 형미와 여엄은 공사상을 근간으로 선풍을 전개했고, 이엄과 경유는 심법의 본성을 깨쳐 일상적인 선에 근거해 법을 펼쳤다. 네 분의 대사들은 공통적으로 조동종 도응의 법을 받았으며, 귀국해 고려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다. 사무외대사 가운데 『경덕전등록』에 이름이 전하는 선사는 경유뿐이다. 사

58) 『朝鮮金石總攬』上(1976),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59) 『朝鮮金石總攬』上(1976),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무외대사는 태조 왕건과의 인연으로 승려의 정치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태조 왕건 입장에서 볼 때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선사들의 법연이 필요했을 것이요, 선사들 입장에서는 혼란한 시기에 권력층과 민중에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중생을 향한 자비의 방편이라고 본다.

## 10. 고려 초기 - 25권, 행사의 10세 법손

행사의 9세 법손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의 법사 30인이 거론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려 도봉 혜거(道峰慧炬, ?~974) 이름이 나오면서 기연이 전한다[법맥은 행사-석두-천황도오-용담승신-덕산선감-설봉의존-현사사비-나한계침-법안문익-영갑].

『경덕전등록』에 선사로서 혜거의 모습에 대해 “처음에 정혜에게 법을 얻었는데, 본국의 왕이 사모하여 사신을 보내오라고 청하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국의 왕이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다.”<sup>60)</sup>는 기록이 전한다.

“선사가 위봉루에서 법을 설하는 중에 위봉루를 가리키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위봉루가 여러 상좌들을 위해 벌써 다 거량을 마쳤다. 여러분, 알겠는가?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아는가? 혹 모른다면 위봉루를 어째서 모르는가? 여기서 법을 끝냅니다.’”<sup>61)</sup>

이렇게 선사의 위용을 언급하면서 ‘혜거는 중국에서 법을 펼치지 않았고, 입적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경덕전등록』에 전하고 있다.

60) 『景德傳燈錄』卷9 (T51, 414b), “始發機於法眼之室 本國主思慕 遣使來請 遂回故地 國主受心訣禮待彌厚.”

61) 『景德傳燈錄』卷9 (T51, 414c), “一日請入王府上堂 師指威鳳樓 示眾曰 威鳳樓為諸上座舉揚了 諸上座還會麼 儻若會且作麼生會 若道不會 威鳳樓作麼生不會 珍重.”



## 11. 고려 초기 - 26권, 행사의 10세 법손

26권은 길주 청원 행사의 9세로부터 11세 법손까지의 기록이 전한다. 여기에 법안 문익의 법손으로 고려 영감선사(靈鑑禪師)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법맥은 행사-석두-천황도오-용담승신-덕산선감-설봉의존-현사 사비-나한계침-법안문익-영감]. 영감의 법거량이 『경덕전등록』에 전하는데, 내용을 보자.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청정한 가람입니까?”  
대사가 답했다.  
“쇠 우리이니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어리석은 놈을 끌어내라.”<sup>62)</sup>

영감에 관한 기록은 위의 법거량 하나이지만, 하나만으로도 영감의 대기대용을 엿볼 수 있다.

## IV. 나가면서

### :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나말여초 선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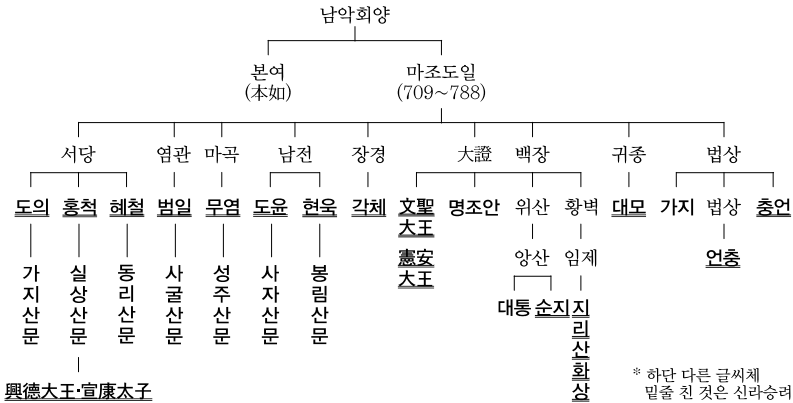
당나라 초기에는 교종이 발달했으나 중기 이후로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나말여초 승려들도 중국으로 건너가 선(禪)을 하고, 법맥(法脈)을 받아왔다. 앞에서 보았지만, 법맥은 회양 계와 청원 계의 제자들이다. 먼저 회양

62) 『景德傳燈錄』卷20 (T51, 420c), “僧問 高麗靈鑑禪師 師曰 牛欄是 問如何是佛 師曰 拽出癩漢著.”

계 마조 문하의 신라 법손들을 보자.

회양의 4세 법손으로 서당 지장의 제자로 도의[전등록 9권]·홍척[전등록 9권]·혜철[전등록 9권], 마곡 보철의 제자인 무염[전등록 9권], 장경 회휘의 제자로 현욱[전등록 9권], 각체[전등록 9권], 염관 제안의 제자로 범일[전등록 10권], 남전 보원의 제자로 도윤[전등록 10권] 대매 법상의 제자로 가지[전등록 10권]·충언[전등록 10권], 귀종 지상의 제자로 대모[전등록 10권], 백장 회해의 제자로 명조안[전등록 10권]이 전한다. 다음 회양의 5세 법손으로 천용의 제자 언충[전등록 11권], 염관 제안의 법손인 범일[전등록 10권]이다. 또 회양의 6세인 양산의 제자 순지[전등록 12권], 임제의 제자인 지리산화상[전등록 12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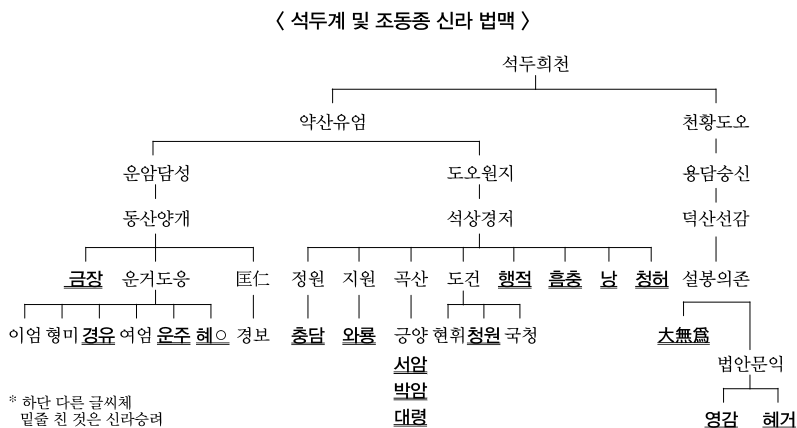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남악·마조 계 나말여초 禪者들〉



☞ 도표 1

다음 청원 계 석두 희천의 법손을 보자. 행사의 6세 법손으로 석상 경저의 제자로 흠충·행적·낭선사·청허[전등록 16권], 청원의 6세 법손인 동산 양개의 제자인 금장[전등록 17권], 행사의 6세 법손인 구봉 도건의 제자인 청원[전등록 17권], 행사의 6세 법손인 운개산 지원의 법사인 와룡[전

등록 17권], 행사의 6세 법손인 곡산의 법사인 서암·박암·대령[전등록 17권], 행사의 7세 법손인 설봉 의존의 제자인 대무위[전등록 19권], 행사의 7세 법손인 운거 도응의 제자인 운주·경유·혜[전등록 19권]이다. 행사의 10세 법손인 법안 문익의 제자인 혜거[전등록 25권]·행사의 10세 법손인 영감의 기록이 있다[전등록 26권].



☞ 도표 2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선사들의 선풍을 정리해보자.

첫째, 신라 말기에는 승려들이 남악 회양 계통의 선사들로부터 공부를 하고, 법을 받아왔으나 고려 초기로 들어가면 청원 행사 계통의 선사들에게 법맥을 받아왔다.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선사들을 볼 때, 흥주종·위양종·임제종·조동종·법안종 등 다양한 선풍이 나말여초에 전개되었다.

둘째, 신라 산문은 오로지 선만을 내세우는 산문도 있었지만 선교 융합을 주장한 산문도 있었다. 즉 가지산문 도의나 사굴산문 범일이 교를 배제하고 오로지 선만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리산문 혜철은 선교 융합을 꾀했던 인물이다. 이는 선사들마다 제접하는 방편이 다를 뿐 누구의 사상이 더 수승한지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대 한국불교사에 다

양한 선풍이 전개됨으로서 후대 한국불교의 초석이 되었다.

셋째, 나말여초에는 선종 9산선문이 개산하였다. 『경덕전등록』에 전하는 이들 가운데 9산선문에 속하는 선사를 보면, 가지산문 도의·실상산문 홍척·동리산문 혜철·사굴산문 범일·성주산문 무염·사자산문 도운·봉림산문 현욱·오관산문 순지이다. 이외 수많은 선사들이 입당해 법을 받았으나 산문을 개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넷째, 청원 계에서 법을 받아들인 선사들인 경우는 9산선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라 선풍은 회양·마조계의 선사상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임제계에서 나온 대혜 종고의 간화선 선풍이 고려 때 발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우리나라 나말여초 승려들의 행적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중국이 주변국[우리나라 포함]을 오랑캐라고 하면서도 나말여초의 승려들이 『경덕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한국불교의 저력이 드러남을 엿볼 수 있다. 역사 없는 미래는 발전할 수 없다. 앞으로도 여러 제현의 우리나라 선지식 발굴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祖堂集』 K45

『禪門寶藏錄』 H6

『無問關』, T48

『法寶壇經』, T48

『宋高僧傳』, T50

『景德傳燈錄』, T51

『宗門十規論』, X110

『禪門拈頌』, H5

지관스님(1992), 『경전연구』, 한국불교연구소

『朝鮮金石總覽』上(1976), 서울: 亞細亞出版社

■ Abstract

**The *Seonja* During the Time from the End of Shilla to  
the Beginning of Goryeo Appearing in  
'*Gyeongdeokjeondeungrok*'**

Sin, Myunghee(Ven, Jungun)

'*Gyeongdeokjeondeungrok*' is a book that had been written by the Buddhist monk Dowon of the Fayan School in the year 1004. There are 30 volumes of this book. It has been mentioning about the whereabouts and the affinity opportunities of 1701 Buddhist monks from the 7 Buddhas in the past to the 28th generation of the *Seocheon*, to the *Dongto 6 jo*, and until reaching the *Beopanmunik*. However, although it conveys only the whereabouts of 951 Buddhist monks and only their names other than these, it is an important book of Zen Buddhism that has recorded the historical facts. Although, in the beginning of the Tang Dynasty, the non-Zen Buddhism had been developed, after the middle period, with the Zen Buddhism developing, the Buddhist monks, too, during the time from the end of Shilla to the beginning of Goryeo had done the zen and had received the Buddhist doctrine by going over to China. Although, among the Zen Buddhists (performers) who had received Buddha's teaching, there had been the Buddhist monks, too, the great kings, too, have been included. Although, during the last period of Shilla, the Buddhist monks had received Buddha's teaching from the Buddhist monks of the *Namak* faction, entering

into the beginning of Goryeo, most of them had been the cases in which they had received Buddha's teaching from the Buddhist monks of the *Cheongwon* faction. The whereabouts of the Buddhist monks during the time from the end of Shilla to the beginning of Goryeo appearing in '*Gyeongdeokjeondeungrok*' are the important materials for the research, too, of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Keywords** ● '*Gyeongdeokjeondeungrok*', the time from the end of Shilla to the beginning of Goryeo, Zen Buddhist, Buddhist doctrine, Zen Buddhism.

■ 논문투고일 : 2022. 5. 31 ■ 심사완료일 : 2022. 6. 13 ■ 게재확정일 : 2022. 6. 15

